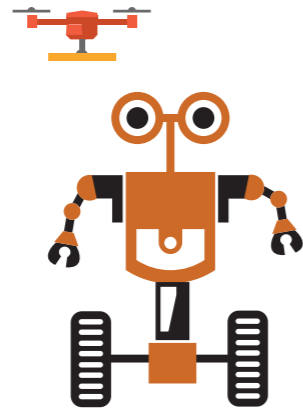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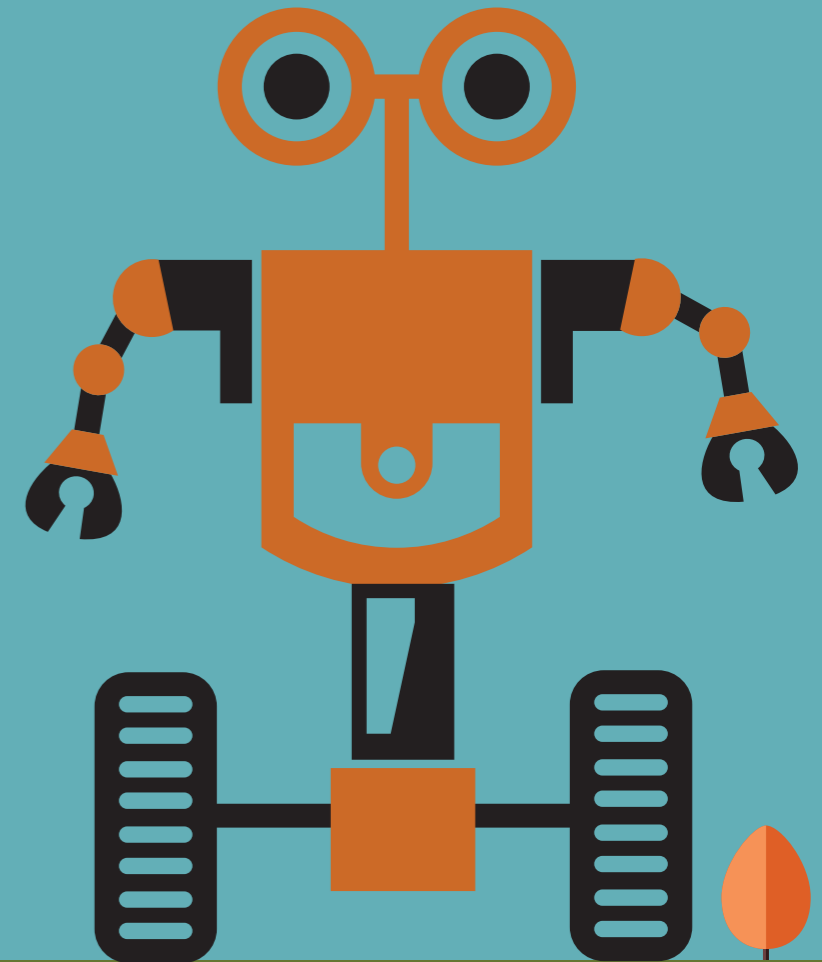


2016. 가을호 | Vol. 40

기술로 품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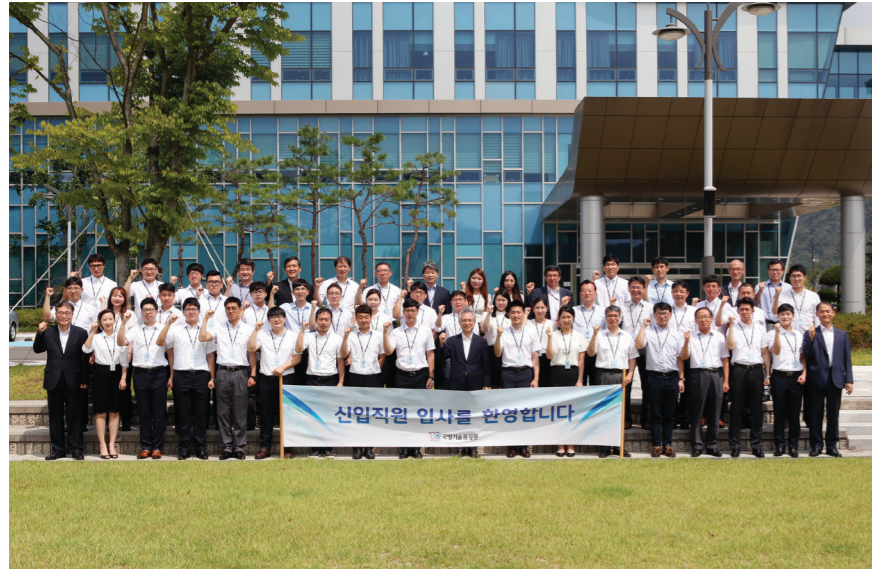


국방기술품질원
DTaQ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www.dtaq.re.kr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 420, Dongjin-ro,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 tel. +82-55-751-5163 | fax. +82-55-751-5266



04
전문가의 길
 국방 안보 전문 미디어 기관의 수장,
 권이섭 국방홍보원장

28
완벽품질
 대한민국 전투기 FA-50,
 필리핀 하늘을 수호하다



36
패션코치
 화려한 외출,
 색다른 변신



기술로 품질로

VOL. 40
 2016. Autumn



DTaQ People

- 04** **전문가의 길**
국방 안보 전문 미디어 기관의 수장,
권이섭 국방홍보원장
- 08** **특별한 만남**
열정과 패기 가득한
2016 신입 기품인
- 12** **최고의 파트너 1**
국방 장비를 보호하는
참병으로 거듭나다
(주)성진테크윈
- 14** **최고의 파트너 2**
번득이는 창의력과 도전력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지력을 보이다
(주)빌드
- 16** **최강 우리팀**
어제와 오늘, 다름을 논하다
창조와 혁신의 새바람, 경영성과실

DTaQ Story

- 20** **창조국방**
최신 ICT를 활용한
기품원 정보화 전략 계획
- 24** **미래기술**
기술기획본부 10년의
성과와 발전 방안
- 28** **완벽품질**
대한민국 전투기 FA-50,
필리핀 하늘을 수호하다
- 32** **군사세계**
정예 국방력 건설의 중요성과
기품원의 역할

DTaQ Life

- 36** **패션코치**
화려한 외출,
색다른 변신
- 42** **숨은 능력자**
품질경영본부 김주현 사무원
길냥이와의 추억을 컷툰으로 그리다
- 44** **문화공감**
진한 동료애가 담긴
에스프레소 한잔 어때요?
- 48** **신입생활백서**
위풍당당 기술기획 도전기

DTaQ News

- 50** **행복 더하기**
- 52** **일상 나누기**

발행인 이현곤 발행일 2016년 10월 발행처 국방기술품질원 | (52851)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 tel. 055)751-5163 | fax. 055)751-5266
 편집위원장 허한 내부편집위원 박종남, 박경진, 장봉기, 박성수, 하성철, 박선영, 선승원 외부편집위원 장영 기자(MBC경남)
 기획·편집 국방기술품질원 홍보협력실 사진 박성근(take_a_photo@dtaq.re.kr) 담당자 박민정(heavenipmj@dtaq.re.kr), 조진주(pilora@dtaq.re.kr) 디자인·제작 성우애드컴



차별화된 경험이 전문가를 만든다.

국방 안보 전문 미디어 기관의 수장, 권이섭 국방홍보원장

국방홍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영 혁신을 통한 협업과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에 앞장선 권이섭 원장. 3대(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아들·조카)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 명문가이자, 30여 년간 공보 전문가의 길을 걸어오며 최고의 위치에 오른 그를 만났다.

Q 지난 2013년 국방홍보원 12대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국방홍보원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조직문화를 개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A 제가 부임할 당시, 사회적으로 국방홍보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국방홍보원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기관의 궁극적인 임무와 나아갈 방향인 미션 및 비전을 새롭게 정립한 전략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달성코자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전 직원들과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특히 국방 종합 미디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방뉴스 현역 앵커 6명을 국방홍보원으로 편제했으며, 신문과 TV, 라디오, 뉴미디어 등 매체 간 소통과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방일보 열독률과 국방TV 시청률, 고객만족도 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Q 그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6월 국방홍보원이 정부책임 운영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 같습니다. 국방홍보원은 국내

유일의 국방 안보 전문 미디어 기관으로, 남다른 특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일주일 후인 1950년 7월 4일, 국방홍보원의 전신인 국방부 촬영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올해로 66주년을 맞게 된 우리 원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책임 운영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기관차원에서 14년 만의 경사이며, 그동안 직원들의 땀과 열정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방홍보원은 현재 매일 15만부를 발행하는 국방일보와 스카이라이프, IPTV, 케이블을 통해 24시간 방송하는 국방TV, 제주도, 백령도를 포함한 전국 가청권의 국방FM,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를 통해 국방의 참모습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군의 무형전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미디어 운영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평소 매체 협업을 통해 미디어 간 크로스미디어나 OSMU(One Source Multi Use 원 소스 멀티 유즈, 하나의 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사용처를 개발해 내는 것) 전략을 구사하여 매체 운영의 효율성과 홍보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Q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등에서도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추구하는 조직문화는 무엇입니까?

A 저는 부임 초부터 매체 간 협업 등 직무 수행 시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먼저 '조직 구성원 상호 간 신뢰와 배려를 기본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는 궁극적으로 4대 매체의 복합 미디어 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진 국방홍보원이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에 저는 '미디어 전략 대화'를 통해 매주 1회 매체 간 협업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만사소통(萬事疏通), 모든 일은 소통으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현장을 중시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원장님께서 공보 전문가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셨는데요.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전문가란 무엇이며, 한 분야의 최고에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30여 년의 군 생활 동안 정훈공보 분야에서

근무했고, 현재 국방홍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국방안보 홍보 분야에서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문가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탁월성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고객 눈높이 맞추기',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기 PR' 등 다양한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묵묵히 한 길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자신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획일화된 사고가 아니라,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이 차별화된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Q 국방일보와 기품원은 현재 공동기획을 통해 매주 세계 무기 동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품원이 나아가야 할 공보 및 홍보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면요?

A 공보는 진실이 생명입니다. 거짓으로 은폐하는 순간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악성 사건일수록 진실을 이야기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품원이 적극적인 미디어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매주 수요일 국방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기품원 공동기획 세계무기동향'은 주변 독자와 모니터 요원들로부터 국방일보의 정체성을 잘 살린 매우 유익하고 인기 있는 콘텐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현곤 기품원장님께서 직접 출연하신 국방TV의 '첨단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이라는 프로그램도 기품원을 홍보하기 위한 좋은 콘텐츠였지요. 앞으로 국방FM '밀리터리 IN',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등 국방홍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이용해 기관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품원만이 가진 전문성과 국방홍보원이 가진 특수성을 결합한다면, 기품원은 대내외적으로 기관의 전문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방홍보원은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기에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요.

Q 국방홍보원은 국내 유일의 국방 안보 전문 미디어 기관으로서, 군은 물론 국방 유관기관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


데요. 국방홍보원의 시각에서 기품원은 어떤 모습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기품원의 우수한 활동들이 국방안보매체를 위시한 미디어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와 홍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품원의 전문적이고 우수한 활동상이 매체에 자주 홍보된다면, 더 많은 국민이 기품원을 국가방위산업의 핵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품원의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국민적 동기가 용이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거시적 관점에서 기고와 방송 출연 등 기관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매체 홍보 분위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하다면 국방일보의 지면과 국방TV, 국방FM의 프로그램 시간을 제공해 드리는 등 국방홍보원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Q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 남은 기간 동안 원장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A 올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매

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방일보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객들 손에 전달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기에 배부선 체계를 개선하고, 국방TV는 콘텐츠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익·공공채널 진입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방FM은 경남지역 송신소 개국을 통해 전국으로 가청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기관 차원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아카이빙 시스템(Archiving System, 파일보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방 안보 콘텐츠의 허브역할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이날 권 원장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소통이었다. 권 원장은 조직원 개개인의 향상심(向上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권 원장. 명실상부 국방홍보 전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의 차별화된 경험은 지난 30년간 다양한 사람들과 진심어린 소통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열정과 패기 가득한 2016 신입 기품인

지난 8월 16일, 기품원 신입직원 입사식이 열렸다. 이날을 시작으로 진주 본원과 사천 KB인재니움에서 7일간 신입직원 교육이 진행됐다. 기본 역량 강화와 조직에 대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신입직원 교육,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열정과 패기가 가득한 42명의 기품인을 교육 현장에서 만났다.



기품원에 입문하다

8월 16~19일 기품원 진주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입문교육. 이에 앞서 입사식이 진행됐다. 기품인으로서 당당히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 선배들이 함께했다. 47명의 신입직원은 기품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담아 이현곤 원장과 선배들 앞에 선서를 한 후, 기품원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1일차에는 △인사제도 △청렴 △보안 △홍보 교육이, 2일차에는 △정책기획 및 법률지원 △근무/복지제도 △성희롱예방 △정보체계 활용법 △방위력 개선사업 교육이 진행됐다. 3, 4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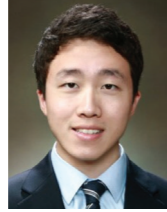
에는 품질경영본부와 기술기획본부, 기술진흥센터, 신뢰성센터 등 각 부서의 역할과 업무 이전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부서별 업무 기능과 복지 제도, 법률지원 제도 등 4일간의 입문교육에서 매 시간마다 집중하는 새내기들에게서 기품인의 열정과 패기를 엿볼 수 있었다.

기품인의 역량을 키우다

기품원은 8월 22~24일 사천 KB인재니움에서 신입직원으로서의 역할과 공문서 작성 등 기본 직무에 필요한 역량교육을 실시했다. 1일차에는

△협심사의 완성과 책임감 △프로페셔널 보고서 작성 기법 △공문서 작성요령, 2일차에는 △내부 고객 관리기법(비즈니스 에티켓) △외부고객 관리기법(서비스 마인드), 끝으로 3일차에는 △신입직원의 감성역량과 팔로워십 △청렴교육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역량 교육은 합숙을 통해 조직생활에 필요한 팀워크는 물론 동료애와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품인이 되다
Mini Interview



기본체계팀 류명주 연구원

8월 16일부터 24일까지의 신입사원 교육기간 동안 4일은 진주 본원에서, 그리고 3일은 사천 KB인재니움에서 보람된 교육 일정을 마쳤습니다. 첫 직장생활인 만큼 조직생활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청렴과 보안을 중시하는 기품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는 동안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자신의 일인 것처럼 도와주는 동기들을 보며 따뜻한 동료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품원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뢰성시험센터 김영연 사무원

선사식을 하고 청렴교육과 보안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국방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하나의 행동이 기품원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행동 가짐에 조심해야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행정 업무를 통해, 팀원들이 가장 효율적인 길을 가도록 돕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 수행하여 국방에 이바지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유도감시팀 이재훈 연구원

7일간의 신입직원 교육 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배웠지만 특히 역량 교육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부서별 업무 역할과 비전에 대해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고, 조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업무지식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규정을 잘 숙지하여, 오늘날 선배님들이 이룩하신 기품원이라는 명성에 먹칠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기품인이 되겠습니다.



전력지원체계기술팀 계현진 연구원

합격 통지를 받고 환호성을 지르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신입사원 교육을 끝내고 업무를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많이 떨립니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잘 구분되지 않지만 기본 좋은 떨림인 것은 확실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꼭 필요한 교육이었고,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창한 미래 목표보다는 앞으로 딱 3년 뒤, 적재적소에 제 몫을 하며 기품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유진호 / 김관년 / 황재식 / 박광호 / 지상용 / 안병준 / 안상아 / 구희환 / 한승호 / 허지연



왼쪽부터 김종윤 / 김수태 / 박병호 / 이명직 / 류명주 / 이성훈 / 김영연 / 전호진 / 윤일웅 / 김진동



왼쪽 위부터 이재훈 / 변진성 / 최광일 / 이지은 / 전병준 / 홍정민 / 심재성 / 강주환 / 박시웅 / 감혜미



왼쪽부터 백지현 / 계현진 / 박상현 / 이창범 / 양재창 / 이정현 / 박재현 / 박철민 / 양승협 / 전영실



(주)성진테크윈

국방장비를 보호하는 침병으로 거듭나다

2001년 9월에 설립된 (주)성진테크윈(대표 이계광)은 군수용 스위치를 포함한 다양한 군용 부품과 근거리 무선통신 블루투스 모듈 및 낙뢰, 유도뢰 제어품을 생산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다.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F-35의 조종간 부품을 개발한 실적과 국내 최초 국산헬기 수리온의 조종간 개발업체로 선정되면서 지난 2007년 3월 방위산업체로 공식 지정됐다.

성실과 열정으로 일궈낸 사업구도

국방분야사업에 참여하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성진테크윈은 전 직원이 오직 성실과 열정으로 뚝뚝 뚝뚝 방위산업체로 공식 지정되는 등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현재 (주)성진테크윈은 FA-50용 조종간/비호조종간, 수리온용 스위칭커플러 국산화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시험 및 규격화를 진행 중이다. 특히 (주)성진테크윈이 개발한 디지털조명 제어시스템은

전투기 조종사들의 시각적인 피로도를 해소하고 기체의 무게를 줄이면서 동시에 비용까지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아이템으로 작용, 미국 최대 전투기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의 관계자에게도 소개되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품목이다. (주)성진테크윈은 고정익 유인항공기, 무인항공기, 회전익항공기, 전차, 장갑차, 해상장비(장보고), 유도무기 분야의 조종시스템, 야시계기판넬, 신호제어기, 무인조종시스템을 개발, 국산화

뿐만 아니라 군술, 창정비 등의 사업영역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또, 기구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능력은 물론, 핵심 제품군인 군용스위치와 트랜스듀서, 인디게이트 등 다양한 원천부품 개발 및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우수한 무선통신기술 개발능력과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자랑한다. (주)성진테크윈은 양산 중인 수리온 조종간 및 시선조종장치(SCU)의 공급과 소형무장헬기(LA-H) 및 소형민수헬기(LCH) 사업에 5개 품목

을 수주하여 개발을 진행 중이며, 수주가 확정된 F-35의 부품공급은 2034년까지 양산이 확정돼 그간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사업으로 다각화 노력

현대사회는 무인감시장비나 원격계량시스템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낙뢰뿐만 아니라 작은 이상전압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주)성진테크윈은 민·군 겸용 사업으로 전기선로나 통신선로에 유입된 이상전압이나 낙뢰로부터 전자기기를 보호하는 서지보호기(SPD)를 개발, 신기술 인증을 비롯해 KS인증과 수출을 위한 국제 CB인증을 취득하였다. 또, 전술정보통신체계(TCN)용 대용량 무선전송장비필터와 전산센터 보호용 서지보호기, 천궁 사격통제장비, 발사대, 레이더 보호용 서지보호기 개발업체로 지정되어 규격화를 마치고 양산 중이다.

항공기 낙뢰보호용 낙뢰필터를 개발하여 현재 개발 중인 모든 무인기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소형무장헬기, 소형민수헬기, 한국형전투기(KFX) 시스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관련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 낙뢰, 서지 콘퍼런스'에 나공사와 함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여 항공기의 낙뢰보호 대책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군용 부품과 함께 낙뢰필터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매년 국제 에어쇼에 참여하고 있다.

수준 높은 기술지원이 성장의 원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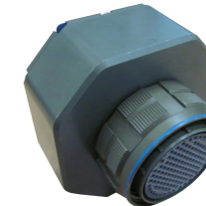
(주)성진테크윈은 수년 전만해도 민수 분야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해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자동차용 블루투스 모듈을 자체 개발, 국내외 유수의 카오디오 및 네비게이션 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이어왔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블루투스 모듈의 기본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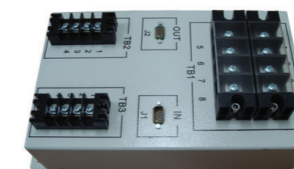
수리온 조종간



수리온 SCU



항공기용 낙뢰필터



천궁 낙뢰보호기

게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또, 블루투스 모듈 적용을 희망하는 회사들에게 초기 개발시간 단축 및 품질기능 최적화를 위해 제품에 대한 폰 호환성 시험 및 블루투스 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성진테크윈은 정보와 오락(Intertainment), 연결성(Connectivity), 컴퓨터 통신(Telematics) 등의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이 추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사양의 블루투스 모듈 개발을 진행, 새로운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고사양의 블루투스 모듈은 기존 모듈과 비교해 고가이기 때문에 추후 매출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방산업체로 우뚝 서다

민수용 부품 생산 경험 외에 군용품 생산 경험이라고 전무한 (주)성진테크윈이 처음으로 F-35의 조종간 부품을 개발하면서 겪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했다. 군수장비 개발 시스템은 물론 용어 하나하나가 생소한 상황에서 개발에 대한 부담감과 행정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실로 컸을 것이다.

“모든 직원이 성실성과 일에 대한 집념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사업을 함께 했던 체계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조금씩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개발품에 대한 품질검증 절차와 규격화 과정도 험난하지만 하던 시기에 기품원 대전센터 관계자들의 규격화에 대한 세심한 지도와 헌신적인 도움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은 핸드프리 기능이며, 핸드프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통화품질이다. (주)성진테크윈은 잡음 제거(Noise Reduction) 및 에코 제거(Echo Cancellation)를 위해 블루투스 모듈에 탑재되는 디지털신호처리기(DSP)를 이용한다. 이는 (주)성진테크윈이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하는 업체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방산업체가 되고 싶다는 (주)성진테크윈. 지금껏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간다면 글로벌 방산업체로 우뚝 설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주)빌드

번뜩이는 창의력과 도전력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저력을 보인다

2014년 철망을 이용한 다양한 특허 및 아이템으로 창업한 (주)빌드(대표 허영철). 그러다 우연히 국방 분야의 방호벽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급기야 1년여 만에 특허를 등록,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 활동 돌입에 이어 다양한 분야에도 발 빠르게 적용 중이다. 도전적인 창업정신으로 방산시장을 개척 중인 (주)빌드를 소개한다.



우연히, 하지만 빠르게 찾아온 기회

(주)빌드는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방산 시장 문을 두드린 새내기 방산업체이다. (주)빌드는 군 사용의 참호건설, 전술통로, 화약고, 도시전투용 예비군 진지, 그리고 사격장 피탄 방지용 방호벽, 지자체 재난방지용 비축 자재 등을 개발했다.

특히 이동식방호벽시스템은 기존의 방호벽 자재인 모래 마대, 황토 블록, 페타이어, 시멘트 블록 등으로 설치되던 것을 아연도금 철망과 국내 최고의 기술인 폴리에스터 섬유를 결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설치 및 해체할 수 있다. 이동식방호벽시스템은 적탄에 의한 2차 피해가 없는 순수 자연적인 탄환과 파편의 에너지 흡수 작용으로 병사와 장비를 보호한다.

(주)빌드는 그간 영국에서 수입하여 해외 파병지 및 국내 해군, 해병에 지급되던 이동식방호벽시스템을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전군에 확대·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함으로써 긴급 상황에서도 필요 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

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 (주)빌드는 A/S 망을 구축해 전투태세를 항상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발 빠른 통찰력으로 이룬 쾌거

(주)빌드가 보인 성과 중 가장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바로 특허 기술이다. 국내 많은 방산업체가 외국 업체의 특허권에 밀려 상용화를 미루고 있는 것과 달리, (주)빌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이동식방호벽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특허 기술을 개발·등록했다.


현재 (주)빌드는 국내 동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방재 시스템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량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 중이다. 또한, 군에서 필요한 각종 규격의 시스템을 시범설치하여, 각 관계자들이 실물을 직접 보고 사전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문 전시장을 건설 중이다.

하나의 가치를 열 배로 키우는 기업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빌드에 더 없이 크게 찾아온 기회는 바로 기품원을 만나면서 이뤄졌다. (주)빌드는 기품원 구미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에 이어 국방우수상용화시험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국내에서 직접 방호 시스템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 도전 K-start up 2016'에 도전, 약 6,600개 기업 중 유일하게 군수물자로 참여해 25위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다.

"첨단기술은 아니지만 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제품임을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각 지방 국방벤처를 통해 보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시 및 홍보를 통해 국외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주)빌드,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크게 헤아리고 활용할 줄 아는 (주)빌드의 미래가 기대된다. 

어제와 오늘, 다름을 논하다 창조와 혁신의 새바람, 경영성과실

기품원은 지난 7월 11일 기획조정부 내에 사업 분석·평가 및 조직성과 관리를 전담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했다. 기관평가와 정부권장정책, 내부 사업계획·분석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영성과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기품원의 어제와 오늘을 분석하고, 창조와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킬 경영성과실을 만나보자.



기품원의 길잡이가 되다

최근 성과평가 고도화 요구에 따라 원 경영전략기반의 성과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존의 MBO(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관리) 제도에 대한 대내외 지적이 증대되면서, 조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됐다. 이에 기품원은 경영성과실을 신설해 원 비전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을 세분화하고,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직성과평가 업무 등을 수행토록 했다.

경영성과실은 연초 부서별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및 월간회의 등을 통한 진행 상황 모니터링, 전후반기 성과분석회의, 최종 조직성과평가 과정 진행까지 일련의

과정을 주관하며, 기품원이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기관 경영평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 경영평가 업무는 우리 기품원이 하는 일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 선정 및 배점 설계, 기관평가 TF 구성 및 보고서 작성 주관, 기관평가 피검과 후속조치에 이르는 프로세스 등을 수행하게 된다.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는 외부의 요구에 따라 기품원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외부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전

파함으로써 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또한, 2012년 최초로 6건의 연구개발장려금을 수상한 이후, 매년 15건 이상의 수상을 누리며 기품원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장려금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직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考案)을 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도입해 업무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 시행정책인 국정과제와 정부 3.0, 사업실명제 업무, 위·수탁 용역사업 성과 분석 및 환류 업무 등도 수행한다.



박선영 연구원
해피해피 열매를
 먹었어요!
 성과 관리

박만춘 책임연구원
기품있고 온화하게
 성과 관리

백성제 실장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리더
 종합 관리

김나미 관리원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다.
 경영공시

홍준석 선임연구원
조용한 한방
 성과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경영성과실은 백성제 실장을 필두로 기품원 미션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 관리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함으로써 △목표 설정 및 검증 △KPI 도출 및 검증 △성과달성 수준평가 △목표조정 등에 대한 전문 지식 배양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실원들은 물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유치 및 자체 토의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영평가 우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전문지식의 응용력을 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종 세미나 및 콘퍼런스에 적극 참여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성과 분석·평가 트렌드 및 적용가능성 등을 탐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

가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바람이 불다

경영성과실은 최근 2016년 전반기 성과 분석회의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서 수정 △성과 분석회의 개선안 마련 △제안제도 개선 시행 등을 추진했다. 또한, 컨설팅을 통해 우리 원의 외부 평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정책기획실이 추진하는 탑다운(Top-down) 정책 수립 및 중기발전 계획서 작성과 동시에 선진화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기품원 업무 수행에 있어 그 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

(양적 측면)과 효과성(질적 측면) 등의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성과목표설정 - 연간사업계획 - 사업시행 - 목표 산출 및 결과 달성 여부 점검 - 의사결정의 환류'라는 프로세스를 갖춤으로써 이에 맞는 성과 지표체계와 성과 평가 방법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경영성과실은 이 같은 과정들을 통해 기품원의 미션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 지표체계와 성과 평가방법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 2단계 정상화 대책실질적 생산성 제고 추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과 관리 및 질적성과혁신을 통한 성과중심 운영체계'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최신 ICT를 활용한 기품원 정보화 전략 계획



글 정보기획실 한영섭 선임연구원

현대사회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 향상, 자원 절감 등을 위하여 정보화를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는 사회 전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로 적용,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 국방부도 여기에 발맞춰 창조국방을 위한 ICT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품원의 최신 ICT를 활용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소개한다.

시대별 정보화 패러다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화의 시대별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1990년대는 정보화의 도입기로 종이문서를 전자화하여 대체하는 업무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전산화가 추진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정보화의 성장기를 맞이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정보화의 성숙기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ICT의 급

격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사회 전 분야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정보화는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및 ICT를 결합한 창조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 정부의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3~2017)에는 '국민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 △디지털 창조 한국 인프라 고도화 등을 전략으로 국가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다. 최근의 정보화는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많

은 양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나아가 사람이 처리하기 힘든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컴퓨터가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스마트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ICT 분야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증강현실, 웨어러블 기기,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다. 인공지능은 올해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로 새롭게 관심이 집중되었고, 최근에는 증권 분야의 투자에도 활용되고 있는 등 특정 분야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결정 능력을 갖는 것

으로 입증되고 있다. 증강현실은 포켓몬GO 같은 게임의 등장으로 더욱 현실화되고 발전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이 등장하여 휴대하기 편하고, 기능도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ICBM의 개념은 사물인터넷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저장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분석해서 모바일 기기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초연결 사회의 핵심기술로 ICBM을 지목하고 이 기술을 집적한 시너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도 ICT 기반 정보화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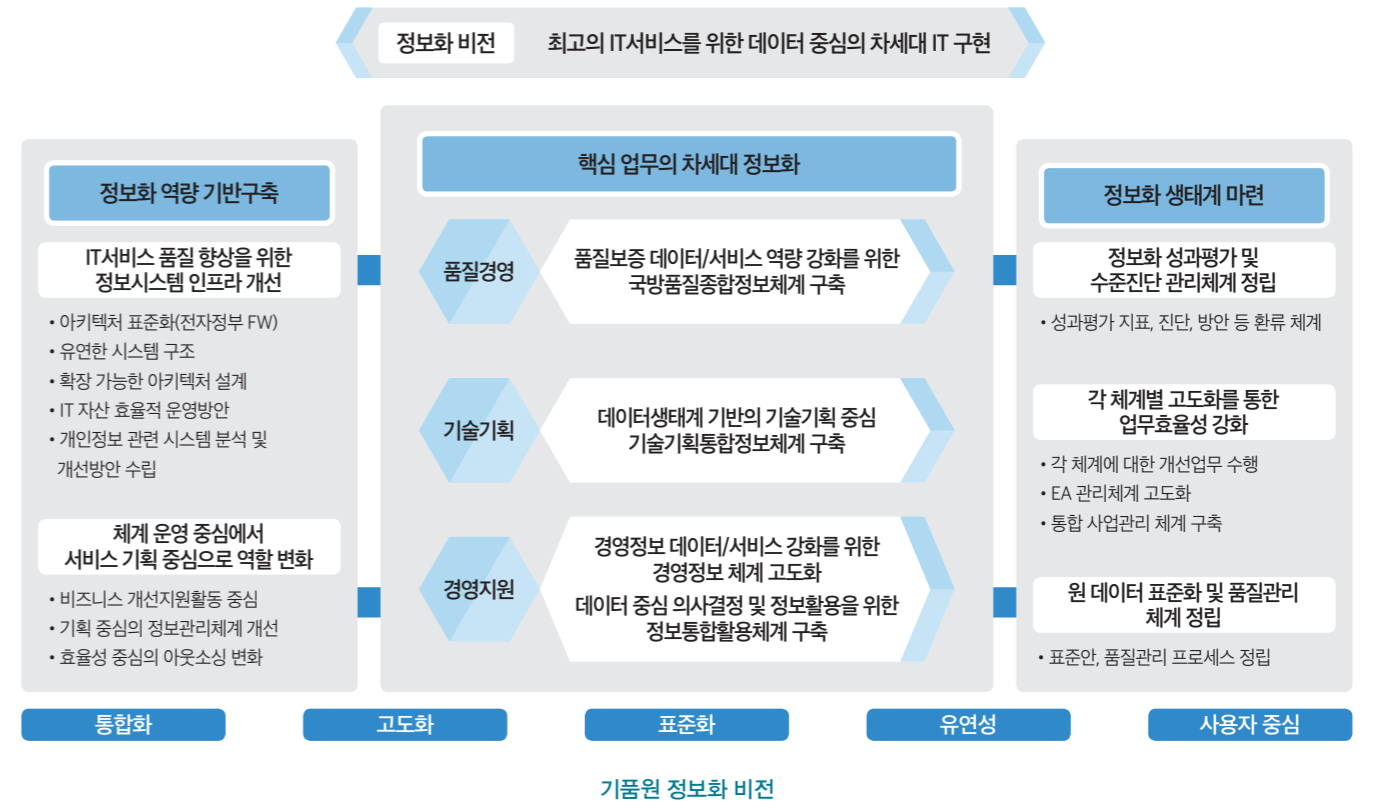
국방부도 여기에 발맞춰 창조국방을 위한 ICT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의 정보화는 네트워크 중심의 군사작전 지원과 국방경영 효율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응용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이외에도 정부의 정보화 기조에 맞춰 창조국방 기반 조성을 위해 국방 사물인터넷 융합 과제인 △한국형 NCW-K(Network Centric Warfare-Korea, 네트워크중심전-한국) 구축방안 △전술 네트워크 기반 무인체계 실증연구 △사이버방호 정책연구 △국방 데이터 거버넌스 개념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NCW-K는 전투 환경이 첨단 네트워크 전쟁으로 전개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ICT를 입힌 미래 국방 사물인터넷 전투사단을 설계하는 과제이다. 전술네트워크 기반 무인체계 실증연구는 무인(로봇, 드론 등) 기반 국방 사물인터넷에 대한 적합한 요구성능 및 규격을 정립하고, 운용 개념을 정의하는 과제이다. 사이버방호 정책연구는 국방 사물인터넷 환경 구축방향에 부합된 보호대책, 사이버방호 정책·기준 등을 제시하는 과제이고, 국방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념연구는 국

방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책적, 기술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과제이다. 부대관리, 병영생활을 스마트하게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선진 병영을 위한 데이터 융합 플랫폼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육군의 경우, 사물인터넷 기반 대대급 지능형 경계시스템과 ICT 기반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 빅데이터 추진사업으로는 △급여예산편성 개선모델 개발 △병영안전 개선모델 개발 △공군 공중전투훈련체계의 공중기동 위험예측체계 구축 △정보유통체계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음향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중표적식별체계 구축 △전장관리체계 정보관리 개념연구 등을 추진 중이다.

기품원의 업무분야별 정보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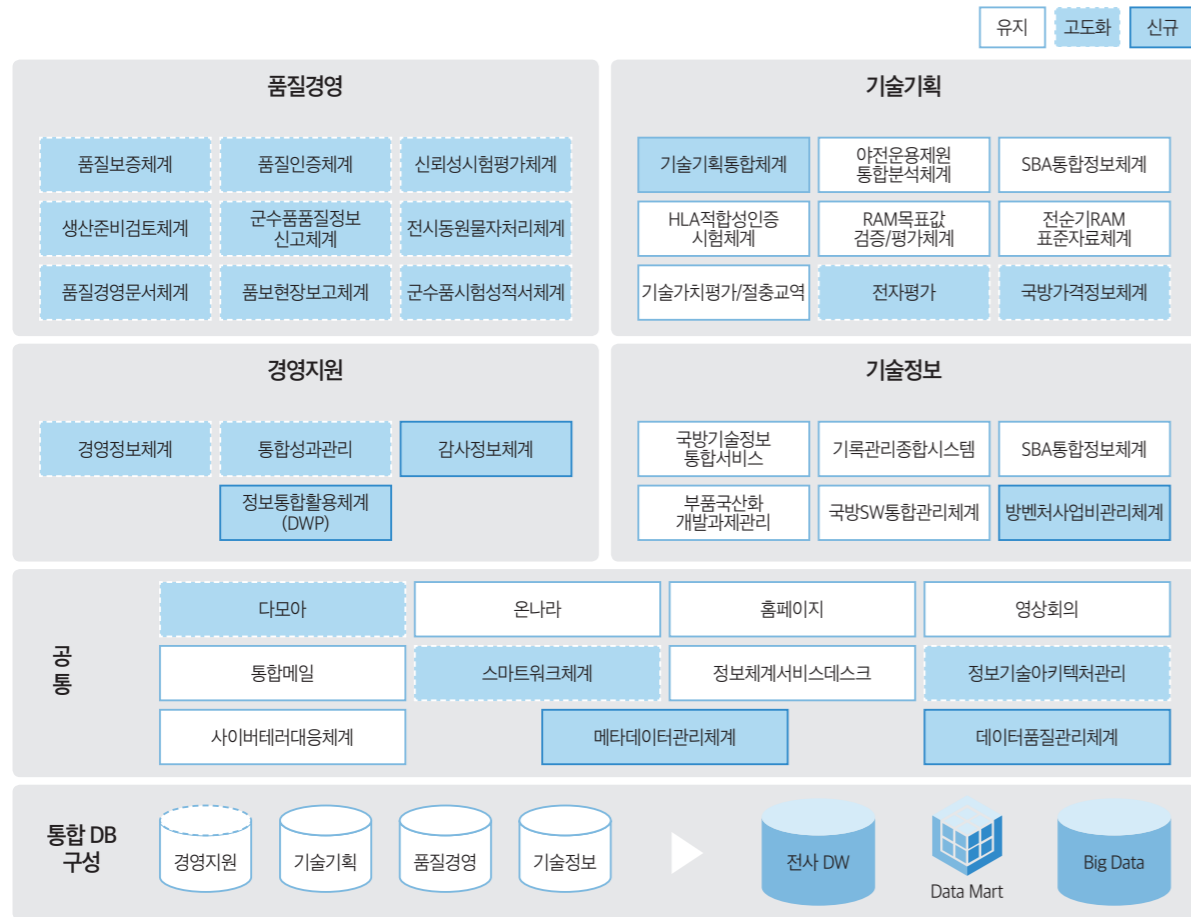
기품원에서는 2016~2020년 정보화 추진을 위해 '최고의 IT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중심의 차세대 IT 구현'을 정보화 비전으로 설정하고, 통합화,



고도화, 표준화, 유연성, 사용자 중심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보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공원에 부여된 핵심 업무에 대한 차세대 정보화를 계획하였다. 품질경영분야에서는 양산단계 품질보증 데이터를 관리하던 정보체계를 전 순기의 품질보증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로 고도화하여 품질보증 데이터·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기획분야에서는 국방과학기술 조사, 분석, 기획, 성과평가 관리를 중심으로 기술기획통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영지원분야에서는 기존의 업무지원체계를 경영정보체계로 고도화하여 경영정보 데이터 연계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통합활용체계(Digital Work

Place) 구축을 통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분야의 세부사업 속에는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ICT를 적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품질경영분야 정보화는 품질경영 전 순기에 걸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점증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는 기존의 품질보증체계, 품질인증체계, 품질경영문서체계 등을 최신 ICT를 통해 고도화하고 통합한 체계이다. 2013~2017년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르면, 개발단계에서 기술 분석 강화 및 사전 품질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총

수명주기 품질관리체계 구축, 국방품질경영 전략, 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시스템 정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품질경영분야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품목별 품질불량률 분석과 신뢰성 시험 적합성 분석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품목별 품질 불량분석은 납품업체 특장별 불량 원인을 분석하고, 생산 일자별, 품목별 불량률의 시계열적 특징이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과제이다. 신뢰성 시험 적합성 분석은 저장단약신뢰성 평가(ASRP)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 시험의 주성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하는 과제이다.



정보시스템 목표 모델

이를 통해 ASRP 시험을 최소화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기획분야 정보화의 주요 내용은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분석, 기획, 평가, 획득연구 등의 프로세스를 정보화하고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획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술기획통합체계는 부서별·개인별로 관리되고 있는 산출물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방산시장 전망, 국외 개발 동향 등의 동향정보, 무기체계 분야, 대표무기체계 등의 무기체계 정보를 관리하고, 구성기술, 핵심기술군, 기술카드 등의 기술정보 및 과제정보, 성과분석 정보 등의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무기체계 분류, 국방과학기술표준 분류, 국방과학기술조사서 무기체계 분류 정보에 대한 연계 정보를 관리하고, 기술기획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게 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MS), 온나라 체계와의 정보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지원분야 정보화의 주요 내용은 경영정보체계 및 스마트워크체계 고도화, 정보통합활용체계 구축이다. 경영정보체계 고도화는 수직업과다, 데이터 불일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보 활용도 및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는 기존 정보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산관리기능(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 예산배정, 인건비 산정 등)과 인사관리기능(채용, 인사발령, 교육, 국외출장 등), 재무관리기능(구매계약, 회계, 급여 등), 시설자산관리기능(자산취득, 재물조사, 시설공사, 시설운영 등), 총무관리기능(근태, 복리후생 등) 등을 새롭게 설계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스마트워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품질보증 업무 현장이나 출장 중에도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통합활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공원의 업무 특성상 기관 내의 자료 검색과 활용에 많은 업무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업무수행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데이터 및 전자화된 문서를 축적하고, 축적된 정보를 대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현하며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각 업무별 특성에 맞게 유연한 통계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업무별 데이터마트 및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온라인 분석처리)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계층별, 업무별로 정형·비정형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통찰력을 확보하여 경영진에게 사업추진·예측 현황을 제공하여 업무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및 인력 관리 방향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버는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서버를 구축하여 자원을 할당해 주는 가상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서버 및 백업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보안체계의 경우 사이버 침해사고, 내부자료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무선침입방지, DDoS전용방어, 서버 개인정보보유 통제, 모바일

일반안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PC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가상 PC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품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기획하고, 사업 추진 및 관리하는 인력의 역량 및 조직구조도 중요하다. 정보시스템 운영 중심이었던 기존의 조직구조를 개선하여 정보 서비스 기획중심으로 정보화 부서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 생태계 마련을 위해 정보화 추진 전에 투자대비 성과를 분석하고, 정보화 추진 후에는 지속적으로 정보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의 정립도 필요하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정보화의 주요 목적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 향상, 자원 절감에 있다. 기공원의 정보화는 최신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정보화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공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으로 도약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 기술기획운영실 임상민 선임연구원

기술기획본부 10년의 성과와 발전 방안

기품원 기술기획본부는 2006년 신설 이래 10년 동안 국방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조사·기획, 방위력개선행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획득연구, 기술의 분석 및 평가 그리고 기술정보의 수집·가공·유통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업무를 발전시켜 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기술기획본부의 주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신설 배경 및 변천 과정

기술기획본부는 '국방기술기획·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국방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원칙 하에 2005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술기획·평가와 기술조사기능을 이관 받고, 기술정보의 통합관리 기능을 추가로 부여 받아 2006년 2월 2일 신설되었다.

신설 이후 기술기획본부가 변천한 과정은 크게 태동기, 성장기, 정착기로 구분할 수 있다. 태동기(2006년)의 기술기획본부는 기술기획실, 기술지원실, 기술분석실, 사업지원실, 기술관리실과 각 실별 3개팀 등 5실 15팀으로 규모로 조직되었고, 조직 명칭도 기술기획본부가 아닌 기술기획단이었다. 2008년 2월 15일 팀제 운영에 따른 대외 위상 절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명칭을 기술기획단에서 기술기획본부로 변경하였고, 팀을 부로, 파트는 팀으로 환원하여 6부 14팀 및 비정규 2팀으로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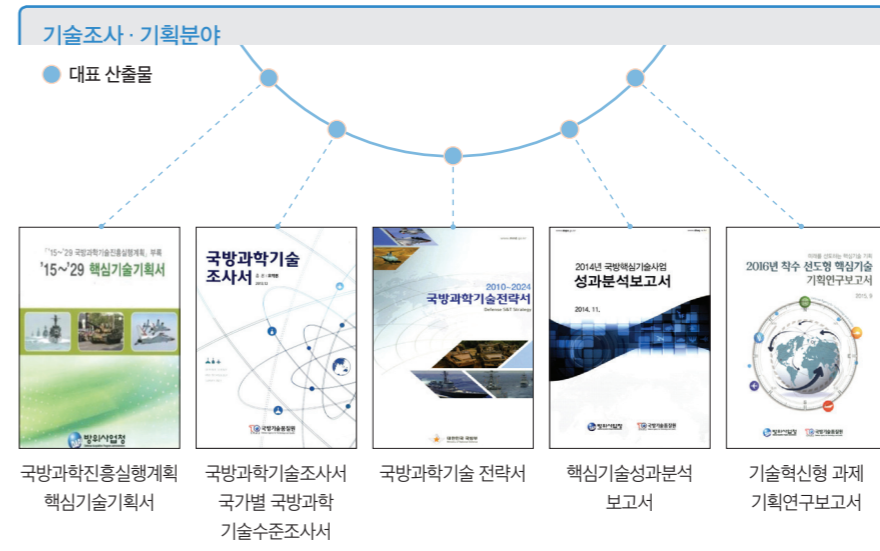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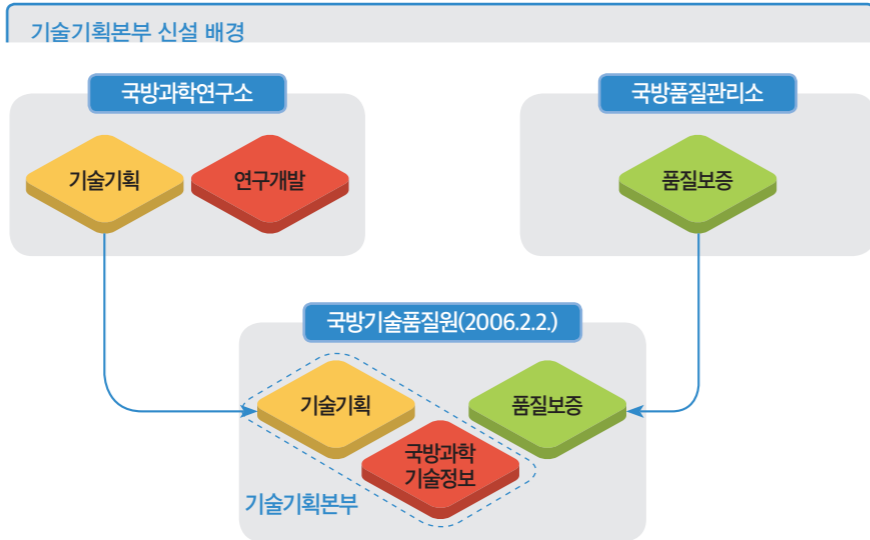
성장기(2011년)의 기술기획본부는 지상·해상·항공 등 전문 분야별 매트릭스 형태 운영이 가

능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5부 16개팀으로 운영되었다. 현재의 기술기획본부는 RAM(Reliability 신뢰도, Availability 가용도, Maintainability 정비도)과 M&S(Modeling & Simulation, 모델링 & 시뮬레이션) 업무가 각각 신뢰성센터와 획득연구부에 통합되고, 총괄

팀에서 수행하던 본부 운영 및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획운영실을 신설하여 4부 1실 10팀으로 운영하며 정착기에 들어서고 있다.

10년의 성과

기술기획본부의 업무 분야는 크게 △기술조사·



기획 △획득연구 △분석평가 △기술정보분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분야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조사·기획 분야

기술조사·기획분야 업무는 개발자로부터 과제를 공모 받아 선정하던 방식에서 미래 소요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전략을 로드맵 형태로 변경하여 기술기획 절차를 더욱 체계화하였다.

현재는 국방 정책을 톱(Top)으로부터 무기체계 소요까지 연계하여 기술기획을 수립하고, 우수한 민간 기술을 조사하여 국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조사를 확대하는 등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목적지향적으로 기술기획 역량을 강화하였다.

기술조사·기획분야의 대표 산출물로는 향후 15년간 개발이 필요한 국방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로드맵이 수록된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과 부록 <핵심기술 기획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와 <국방

과학기술 전략서> 등이 있다.

◆획득연구분야

획득연구분야의 대표적 업무는 선행연구, TRA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기술성숙

도 평가),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신개념 기술시범) 사업 전력소요 분석 등이 있다.

선행연구와 사업분석은 방위력개선행업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획득사업 추진전략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다. TRA 또한 획득연구분야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서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미성숙기술을 식별하여 기술적 위험을 관리하고 체계개발 등으로 단계 전환을 해도 되는 지를 판단하는 중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TRA는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이라는 척도를 사용하여 기술의 준비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기품원이 방위사업청과 함께 주도적으로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방법론에 있어서 타 부처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TRA 전문기관화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전력소요분석은 한국국방연구원과 함께 수행하며 전력소요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분석으로 신뢰성 있는 전력소요검증에 기여하고 있다.



분석평가분야



◆분석평가분야

분석평가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HLA(High Level Architecture, 모의 실험 표준 구조) 적합성, 아전운용지원 분석체계, 핵심기술평가, 기술가치평가 등이 있다.

기품원은 제안서 평가부터 각 단계별 평가까지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품원은 세계에서 3번째로 HLA 즉, 고수준 아키텍처의 적합성 인증시험체계를 구축하였다. HLA란, 서로 상이한 M&S 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국제표준규약으로 과거에는 새로운 작전시뮬레이션 모델이 개발되거나 성능이 개량되면 선진국에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했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의 가치평가는 절충교역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국외 업체가 절충교역으로 기술을 이전할 때 기술에 대한 가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이는 국외 업체와 협상 시, 주도권 확보 및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데

활용되어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기술정보분야

기술정보분야의 대표적인 업무로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인 DTMS와 국방과학기술정보, 군수품 가격정보, 해외입찰 정보 등이 있다.

발전 방안

◆기술조사·기획분야

기술조사·기획분야는 선도적 전순기 통합기술 기획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는 사용

DTMS는 국방기술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국방기술정보 통합서비스다. 국내외 개발 정보 뿐 아니라 해외 개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들이 국방 특성상 비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밀 기술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단계에 와 있다. 또한, DTMS는 국내외 주요 정보와 세계 무기체계 개발 추세, 방산시장 정보 등을 심층 분석하여 별도의 간행물로도 제공하고 있다.

국외 도입 무기 구매 업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군수품의 가격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방 획득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 정보에 취약한 국내 중소방산업체들을 위해 해외의 입찰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술정보분야



자 중심의 기술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향후 소요·정책 기반의 기술기획과 핵심기술 로드맵에서 현재 소요에 반영돼 있지 않은 핵심기술을 기품원 자체적으로 기획·연구하는 하향식 핵심기술과제기획을 계획하고 있다. 단기 목표로는 목표지향적 맞춤형 기술기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과학진흥정책서의 기술정책작성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합참의 도약우위전략 기획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 국방과학기술 전순기의 통합기획과 함께 보다 신뢰성 있는 기획정보 획득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기술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획득연구분야

획득연구분야는 세계 수준의 획득연구조직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에는 획득연구 전문기관 추진을 목표로 선행연구·기술성숙도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화를 추진하고, M&S 인정업무 전담기관과 HLA 인증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에는 발전적 M&S를 적용한 획득연구를 목표로 하며, 선행연구·사업분석·기술성숙도를 내실화하고 M&S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합동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동성을 고려한 대안분석기법을 발전시키고, 현재 동일 부서에서 수행하는 선행연구와 사업분석을 분리 운영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분석평가분야

분석평가분야는 국방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 조직으로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공인 기술평가기관으로 핵심기술 평가기획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의 추적조사를 정착화하며, 절충교역 업무에 활용될 가치평가의 신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8년에는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순기 통합평가관리체계를 구

축하고, 절충교역으로부터 획득한 기술의 성과 분석을 제도화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핵심기술 기획·성과 연계형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분석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기술정보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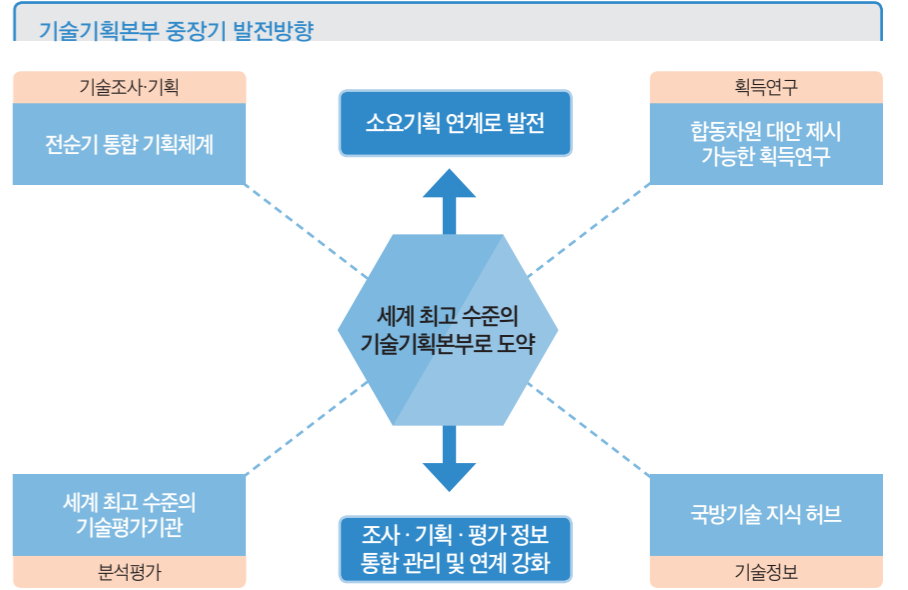
기술정보분야는 국방지식 허브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DTMS 3.0을 구축하고, 가격·시장 정보 획득 및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국방정보 분석서비스 강화를 통한 기반 정착을 목표로 정보분석 툴(Tool)을 개발하여 사용자별 맞춤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소스를 다각화하여 분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국방지식 허브로 정착하기 위해 차세대 DTMS 구축과 사용자 맞춤형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기술정보 이슈분석체계와 지능형

가격분석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결언

기술기획본부는 2006년 신설 이래 10년 동안 국방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조사·기획, 방위력개선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획득연구, 기술의 분석 및 평가 그리고 기술정보의 수집·공유를 위해 기반을 다지고 업무를 발전시켜 왔다.

기술기획본부는 전순기 통합기획체계 기반의 기술조사·기획과 합동차원의 대안 제시가 가능한 획득연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기관, 국방기술 지식 허브로 정착하기 위한 기술정보 등을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기획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본부 종합적인 측면에서 전력소요기획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기획과 조사기획평가 정보의 통합체계 구축을 토대로 향후 10년 후에는 보다 발전된 기술기획본부로 거듭날 것이다.





글 항공팀 박성제 연구원

대한민국 전투기 FA-50, 필리핀 하늘을 수호하다

FA-50 항공기는 T-50 계열 항공사업의 일환으로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고 독자적으로 항공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경전투기다. FA-50은 한국 공군의 실전운용을 통해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 받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필리핀과 이라크에 수출되면서 그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항공수출에도 한류열풍이 불다

요즘 전 세계가 한류에 열광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조회수가 26억 뷰를 돌파했으며, 빅뱅, 소녀시대와 같은 아이돌 스타에 열광하고, 한국 음식을 즐겨먹으며, 의상, 메이크업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든 트렌드를 선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사실 한류라고 하면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다. 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항공 방산업계

에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2000년대 KT-1과 T-50 항공기의 수출을 시작으로 국내 항공기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2012년도에 개발된 국산 초음속 전투기 FA-50 항공기는 다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FA-50 항공기는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다목적 전투기로, 최근 이라크를 시작으로 필리핀 수출이 성사되었으며, 항공 수출에 열풍을 일으킬 또 다른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필리핀 최초의 G2G 사업

FA-50 필리핀 수출기는 2014년 3월 한국-필리핀 정부 간 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FA-50 필리핀 수출기는 필리핀 최초의 정부 간 거래이자 국방 획득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한국과 필리핀 정부 간의 우호적인 관계 조성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FA-50 필리핀 수출기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방위사업청 주관 하에 추진되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수주를 하고 정부 간 무역(G2G)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품원의 품질보증과 현지 수락비행지원을 통해 항공기가 최종 납품되고 있다.

FA-50 Fighting Eagle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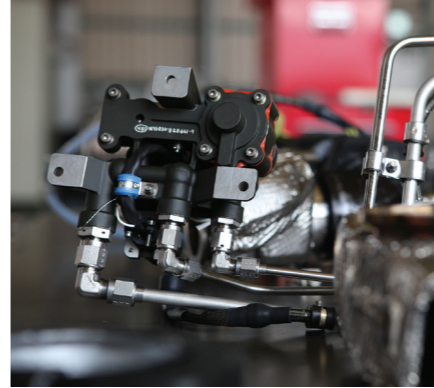
FA-50 항공기는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국내 최초 공격기이다. FA-50은 엔진 1개의 초음속 항공기로 후기 연소기(Afterburner, AB)가 장착돼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 할 수 있다. FA-50 항공기의 방향은 날개에 장착되어 있는 각종 조종면을 통해 조절되며, 디지털 Fly-By-Wire의 시스템을 통한 명령 신호에 의해 제어되어 조종사의 작은 힘에도 크고 무거운 비행 조종면을 움직일 수 있다. FA-50 항공기는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지능형 확산탄(SFW)과 같은 정밀유도 무기를 약 4.5톤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항공 전자 장비가 탑재되어 빠른 연산능력을 통한 다양한 전술이 가능하다. FA-50 항공기는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최첨단 기술 집약체로 여러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항공기의 개발기간은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T-50 항공기는 약 8년 3개월(1997.10.~2006.01.), T-50의 개량형인 FA-50은 약 3년 11개월(2008.12.~2012.10.)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다.

감성품질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

기품원 항공팀에서는 FA-50 필리핀 수출기에 대한 품질보증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품 생산에 서부터 조립, 완성품 검사까지 품질을 완벽에 가깝게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원자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52종의 원자재 시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항인증을 위해 식별된 82종의 주요안전품목(Critical Safety Item)을 선정하여 작은 단품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립 및 계통시험 26가지 공정과 항전·착륙·엔진 계통 등의 6가지 고위험도 기능점검 및 최종 완성품 감사(CEI, Completed End Items and Inspections)를 통해 무결점 항공기를 납품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완벽한 항공기 품질과 최고의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항공팀의 모든 연구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끊임없이 고객에게 응답하라

2015년 11월 5일 항공팀은 필리핀 공군 3명을 초대하였다. 항공팀은 필리핀 공군 설명회를 개최하여 FA-50 필리핀 수출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품질보증활동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양측의 생각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며 필리핀 공군과의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필리핀 Mariano 공군소령은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 품질보증이 이뤄진 만큼 FA-50 항공기에 대해 많은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이어 Pean 공군소령은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준 기품원 항공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항공팀은 고객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고자 제 19차 한-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한-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방산·군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상호 군수지원 및 방산협력 분야에서 공식적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공팀은 기품원을 대표로 참석하여 기품원의 우수한 품질보증기법과 FA-50 항공기 품질보증 수행사항을 소개하여 국내 우수한 방산기술을 알리는데 앞장섰으며, 나아가 고객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기품원의 신뢰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전투기 필리핀 영공을 비상하다

FA-50 필리핀 수출기는 현지에서 조립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아닌 대한민국 조종사가 직접 비행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수출은 현지에서 조립하여 완성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지만, 항공기를 직접 비행하여 전달하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또한, 대한민국 조종사가 필리핀으로 항공기를 직접 전달하여 축하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 그 어떤 사업보다 깊은 상징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12월 항공팀도 수락비행지원을 위해 필리핀 앙헬레스 공군기지에 도착하였다. 필리핀 첫 수출 항공기인 만큼 완벽한 항공기를 전달하기 위해 항공팀에서는 현지에 도착하여 최종 수락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3, 4호기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진행사항 등을 소개하고 필리핀 공군 당국과의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What is Next

기품원 항공팀은 최고의 팀워크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FA-50 필리핀 수출기 2대를 성공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다. 또한, 남

은 항공기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품질보증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12월 FA-50 필리핀 수출기 3, 4호기가 필리핀 현지로 전달될 예정이며, 앞서 1, 2호기와 마찬가지로 최종 완성품 검사 이후 직접 페리 비행을 통해 항공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필리핀의 국제적 관계가 좋지 않아 항공기를 직접 비행하여 전달하지 못할 경우 현지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항공팀은 이를 대비하여, 현지에서 수행 할 수 있는 품질보증 수행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보다 완벽한 항공기를 필리핀에 납품하여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 증대에 큰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글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국제정치학 박사)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에 국방력 건설의 중요성과 기품원의 역할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안보 역량을 제대로 구축했는지 냉철하게 재평가해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만난 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조만간 ‘루비콘강’을 건널 것 같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급속히 증대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얘기하는 와중에 나온 진단이었다. 북한이 몇 년 안으로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거듭된 진화

그의 진단처럼 북한이 8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전력화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핵탄두를 실은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은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수중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잠수함의 핵 공격은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으로 선제 타격하거나 내년에 배치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로도 완벽한 방어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남 핵 위협은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했다. 김정은은 올해 들어 동해안에서 실시한 SLBM 발사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서 대남 핵 타격 협박을 했다. 그뿐인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직접 지휘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한국

내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도 쏟아냈다.

이처럼 북한의 핵능력이 ‘위험 수위’까지 이른다는 그 위협 실태를 과소평가하면서 대처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살라미 전술’과 6자 회담에서 속 빈 협상으로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지만 한국과 주변국은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은 체제유지를 위한 대미(對美) 협상 수단이지 같은 민족을 겨냥한 대(對)민족 협상 수단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북핵 위기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난제였음에도 주변국의 외교적 해법에 기댄 채 적절한 군사안보 대책 마련에 미흡했던 측면도 있었다.

이런 상황은 대북 전력증강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 사거리와 정확도를 개량한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여러 차례 핵실험까지 했지만 한국의 대북방어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확실하게 요격하기 힘들다. 군 당국은 PAC-2 미사일보다 요격능력이 우수한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201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등에 도입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PAC-3 미사일도 미국과 일본이 같은 기간에 도입을 추진 중인 PAC-3 개량형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요격고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 예산 제자리걸음에서 탈피해야

북한 위협대응의 미진한 대응은 국방 예산에서도 잘 드러난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까지 연평균 10% 이상을 유지하던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0년대 후반 8%대로 주춤

한 뒤 2012년부터는 5%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도 국방부 요구(7.2%)의 절반 수준(3.6%)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은 2.5%로 세계 22개 주요 분쟁 대치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국방 예산은 절대금액 측면에서도 주변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앞다퉀 국방 예산을 증액해 한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복지와 민생 예산에 밀려 정부 재정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갈수록 줄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력 증강에 필요한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2%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국방 중기 계획의 전력증강 예산 차질액은 3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이래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주요 전력을 적기(適期)에 확보하는데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병력을 감축하고 첨단무기를 도입해 정예과학교육을 육성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국방 개혁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 예산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군의 주요 전력증강사업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주장도 나온다. 2015년부터 대규모 전력증강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2016~2020년 소요 예산이 급증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괴리가 더는 방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2015년부터 차기전투기(FX) 사업(7조 3,000억 원)을 비롯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8조 6,000억 원), 차기다연장로켓(3조 5,000억 원), 차기미지스함(3조 원) 등 각 군의 대형무기 도입사업이 줄줄이 시작됐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사업도 2020년대 초·중반을 목표로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다. 두 사업에는 최소 10조 원 안팎



화려한 외출, 색다른 변신

올 가을엔 저도
썸을 타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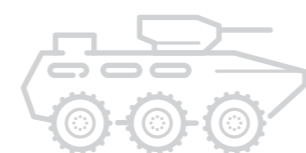
술을 조사 분석해 국내 개발을 할지, 외국에서 수입할 지를 식별하는 '국방기술기획'은 기품원의 고유 영역이자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소요군이 최적기에 가장 효율적인 무기를 도입하도록 뒷받침하는 노력도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이 사용하는 무기와 군수품의 생산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활동(국방품질경영)과 국내외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방 관련 기술 정보와 동향을 획득·분석·가공해 군과 관련 기관에 고부가가치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관리)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이야 말로 기품원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해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취약 분야는 집중적인 예산과 기술 투자를 유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정예강군 육성과 국방기술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기품원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본다. 

를 잇달아 격파한 뒤 조선 지배권을 '전리품'으로 챙겼다. 결국 역대 패권경쟁의 최대 피해자는 자위력이 없었던 조선이었다는 교훈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미래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자위적 역량을 갖추는데 국가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정예 국방력 건설을 위한 기품원의 역할

불확실한 21세기 안보 환경을 헤쳐 나갈 자위적 국방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품원의 역할도 막중하다. 북한은 물론 잠재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정보과학군'을 건설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기품원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전쟁 환경을 예측하고, 세계 각국의 국방과학기술발전 추세와 동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군에 적기(適期)에 제공하는 기품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미래 무기에 필요한 관련 부품이나 기



의 예산이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군사정찰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UAV), 신형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 도입 등에도 17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방 예산은 사실상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12~2016년 국방예산 증가는 3.6~5%로 국방부 요구액(6.6~7.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적정 국방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규 전력 증강사업은 물론 계약이 체결된 무기도입사업도 연부액(年賦額)이 조정되면서 도입 배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요 무기의 전력화가 줄줄이 지체될 경우 안보 공백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올 6월 제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첫 업무 보고에서 적정 국방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향후 5년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적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방예산 증가율이 5% 이상 반드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국방력 건설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책무이기도 하다. 피의 숙청과 광기로 열목진 30대 초반의 독재자가 핵 공격을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국방 투자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국방 자원의 투자를 통해 합동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 전략과 방도를 찾는 데 정부와 군이 매진해야 한다. '안보 골든타임'을 더 이상 허비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재의 전력 증강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민관군의 첨단 기술력과 국가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북한의 비대

칭 위협에 맞설 예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기를 핵으로 맞대응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의 적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고소도치 전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제기돼 왔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창조국방'을 화두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위협을 무력화하는 레이저 무기와 전자기파(EMP)탄,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MW)탄 등 역(逆)비대칭 무기 개발에 역점을 쏟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이런 움직임은 국방 자원의 제한과 안보 위협의 다변화라는 두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방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보 환경 불확실해질수록 국방 투자 늘려야

북한의 핵위협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안보 상황을 살펴보면, 국방 투자의 중요성은 더 무겁게 다가온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과 군비 경쟁이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은 실얼음판을 걷고 있다. 2013년 11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신형 대국관계'를 내세운 중국과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건 일본의 역대 주도권 다툼이 자칫 무력충동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와 올해 방위 예산을 대폭 증액해 공격용 무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해병대가 도서 상륙작전에 사용하는 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도입을 결정하는 한편, 해병대 창설과 대형 강습상륙함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추가적으로 건조해 서태평양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 남중국해 갈등과 러시아의 공세적 군비 확장 정책도 간과할 수 없다.

역내 안보 시계(視界)가 불투명해질수록 한국 안보에 미칠 파급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가 1세기 전 역대 세력 다툼의 각축장이자 패권 경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아픈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중국 대륙의 명·청 패권 교체기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두 차례나 침공을 당했다. 또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해 성공한 일본은 청과 러시아



Suit

매력적인 시크 슈트 룩

밝은 느낌의 블루 슈트는 30대 초중반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이다. 좀 더 젊어 보이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액티브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폭이 좁은 넥타이를 매치하면 슬림해 보이는 느낌까지 줄 수 있다.

시크하고 모던한 느낌을 더해주는 매니쉬한 구두와 남성 슈트 룩의 잇 아이템 행커치프로 스타일을 완성했다. 실버 메탈외치와 블랙 페도라까지 준비하면 보다 완벽하고 센스 넘치는 패션을 연출할 수 있다.

Casual

경쾌한 덴디 캐주얼 룩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인 덴디 캐주얼 스타일. 성인 남성이 연출할 수 있는 캐주얼 스타일 중 가장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청바지에 셔츠나 스웨터, 소품 등을 잘 매치하면 덴디해 보일 수 있다. 자칫 나이 들어 보이는 와인 컬러 니트티는 밝은 베이지 톤의 블루종과 세미 디스로이드 진으로 캐주얼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한 룩을 연출했다.



Daily

멋스러운 이지 캐주얼 룩

벨벳 소재의 그린 슈트에 그린 셔츠를 매치해 안정감이 느껴지는 멋스러운 스타일. 주인공의 마른 체형을 보완하면서 세련되고 트렌디한 스타일을 연출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맞게 데이 룩과 나이트 룩을 한번에 연출 할 수 있게 포인트가 있는 니트와 행커치프로 포인트를 줬 멋을 더하고 어떤 자리에도 어울릴 수 있는 룩을 연출했다.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을 했어요. 스튜디오 촬영은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이런 기호가 일치 않다 보니 나중에는 욕심도 좀 냈어요. 메이킹에 헤어까지 전문가분들이 잘 꾸며주셨는데 끝나고 만나야 할 여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이 아쉬워요. 하하”



품질경영본부 항공1팀 정수현 선임연구원(35)

입사 전에는 학업에 열중하느라 스타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심도 많이 생겨 패션잡지를 찾아보며 옷 하나를 고를 때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 데도 아직까지 저만의 스타일을 찾지 못했죠. 활동성 위주의 편한 옷만 찾게 되는 것도 이유고요. 저만의 스타일을 꼭 찾고 싶습니다.

“엄마의 또 다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다른 일에 도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새로운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품질경영본부 김향인중팀 이미경 책임사무원(55)

생각해 보니 결혼식 이후 단 한 번도 절 위해 투자다운 투자를 해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무난한 의상을 입고, 편안한 옷을 찾다 보니 점점 더 큰 옷만 입게 되었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최근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에게 실감감을 안겨줄까 걱정이 됐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엄마도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Trendy

세련되고 우아한 데일리 룩

올해 트렌드 컬러인 로즈쿼츠 세레니티(블루컬러와 핑크컬러)를 이용한 리본형 플리츠 칠부 블라우스와 핑크타이트 스커트로 화사한 느낌을 연출했다. 의상 컬러톤에 맞춰 액세서리와 슈즈는 최대한 절제함으로써 포인트를 살린다면 차분하고 우아한 매력을 더욱 어필할 수 있다.



Modern Chic

세련된 모던 시크 룩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의 모던 룩으로 모든 여성들이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다. 특히 베이직한 V넥 화이트 셔츠는 영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블랙 와이드플리츠팬츠와의 매치로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이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연출 가능하다. 꾸미지 않은 듯한 시크 룩을 완성하려면 그에 맞는 백은 필수인데,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심플한 디자인의 모노 컬러채백을 추천한다.



Semidress

우아한 세미드레스 룩

매트하게 허리라인을 커버하고, 연베이지 컬러의 H라인 벨형 슬리브가 시선을 소매 쪽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몸매의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한다.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색상은 로즈골드 이어링과 레드 슈즈로 포인트를 줬 매력 있는 스타일을 완성했다. 또한, 피부톤이 밝은 여성이라면 블루톤, 어둡다면 베이지톤의 원피스를 매치하는 것이 좋다.



스타일의 완성은 직장 생활의 성공 포인트 중 하나! 깔끔한 슈트에 모던하고 시크한 스타일은 스마트함을 넘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란 인상까지 심어준다. 하지만 실제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활동하기 편한 복장을 찾게 되는 것이 현실. 오늘 스타일 변신의 두 주인공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세련된 도시남녀로, 잘 나가는 직장인다운 모습으로의 변신을 꾀했다. 주인공들의 조금은 화려한 외출, 색다른 변신을 맞아보자.

글 이미진
스타일리스트 이윤정
사진 전문식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품질경영본부 김주현 사무원 길냥이와의 추억을 킷툰으로 그리다

최근 웹툰의 인기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B급 문화로 평가받던 만화계에 새바람이 불었다. 만화는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했으며, 다양한 콘텐츠와 접목하며 우리 일상에 자리했다. 기품원에도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 킷툰을 그리는 숨은 능력자가 있다. 바로 품질경영본부장실의 비서 김주현 사무원이다.



김주현 사무원의 킷툰을 QR코드로 확인하세요.

Q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킷툰을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A 학창시절에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연습장에 종종 그렸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틈틈이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노트에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킷툰을 그립니다. SNS에 제가 그린 작업물을 올렸을 때, 많은 사람이 좋아해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세요. 이런 피드백이 계속 그림을 그리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Q 고양이와 관련된 작업물이 많습니다. 고양이와의 일화를 중심으로 킷툰을 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A 저는 현재 길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같이 지낸 지 햇수로 4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여행을 가더라도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면서 에피소드가 많이 생겼고요. 그냥 좋아서 그림을 그릴 뿐인데, 제가 이용하고 있는 고양이 카페에 작업물을 게시했더니 고양이를 키우는 많은 분이 공감해주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Q 길고양이를 입양한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A 지인으로부터 길고양이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진을 보고, 첫눈에 이 아이는 제가 입양을 해야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길고양이는 가정분양 고양이와는 다르게 건강도 안 좋고 키우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도 많이 해야 하고, 길에서 자란 고양이라 사람에 대한 경계도 많거든요. 처음에 데려와서 잘 적응할 때까지는 다가가지 않고 고양이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강아지 같은 성격을 가졌더라고요. 정말 귀여웠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면 고양이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차에 동물병원에 사료를 갔다가 구조된 새끼 고양이를 만났어요. 제가 없어도 서로 친형제처럼 지내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마리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Q 특별한 사연이 담긴 작업물이 있으신가요?

A 서울에서 진주로 기품원이 이전하면서 가족도 친구도 없어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동기 중 한 명이 많이 챙겨 주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동기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를 그린 일러스트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동기가 선물을 받고선 진심으로 좋아해주셔서 참 뿌듯했습니다.

Q 혹시 정식으로 웹툰을 연재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A 웹툰을 연재하려면 그림 실력은 물론, 스토리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요. 물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보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SNS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A 현재는 기품원에서 맡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킷툰은 취미로 그릴 예정입니다. 취미로 소소하게 하던 일인데, 기관지에 인터뷰까지 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일도 잘하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는 멋진 기품원이 되겠습니다. T☺



정용환 관리원
재무실

유현진 사무원
품질경영운영실

노유찬 연구원
신뢰성시험센터

진한 동료애가 담긴 에스프레소 한잔 어때요?

정용환 관리원 · 노유찬 연구원 · 유현진 사무원의
바리스타 도전기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뚝뚝'하고 떨어지는 인스턴트 커피는 이제 그만. 신선한 원두를 로스팅해 진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손수 핸드드립으로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본다. 오늘 하루 멋진 바리스타에 도전한 이들은 재무실 정용환 관리원, 신뢰성시험센터 노유찬 연구원, 품질경영운영실 유현진 사무원. 세 명의 초보 바리스타가 동료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카페 레시피를 따라가 보자.

글 임도현 사진 고인순 촬영협조 에디슨커피(진주)

커피의 기본은 에스프레소와 라떼

바리스타 체험을 위해 찾은 곳은 진주 본원에서 도 가까운 커피학교. 이곳에서 선생님의 이론교육 후 바로 체험교육이 이어졌다.

처음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정용환 관리원의 얼굴엔 호기심이 가득하다. 카페에서 종업원들이 커피를 내릴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마음만큼 쉽게 따라주지 않는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진하게 추출된 그의 첫 에스프레소 맛이 궁극하지 않을 수 없다.

"물을 많이 부었다고 생각했는데 맛을 보니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어머니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서 커피를 자연스럽게 접해왔거든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웃음)"

유현진 사무원도 에스프레소 추출에 이어 라떼 만들기엔 열중이다.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나와요. 예전에 커피 수업을 몇 번 받은 경험이 있어서 모양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작품의 세계는 멀고도 험한 것 같아요. 커피를 좋아하는 남편 덕에 집에서 다

양한 종류의 커피를 맛보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커피를 배워 남편과 함께 커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참여하게 됐어요."

예쁜 하트 모양을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다소 기하학(?)적인 무늬가 나오고 말았다. 라떼는 진하게 추출된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를 얹어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 초보에겐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뿜어 나오는 스팀을 차갑게 보관된 우유 속에 주입해 거품을 만들고 에스프레소 잔에 우유 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적당한 속도로 부어어만 우유가 퍼지지 않고 예쁜 하트 모양을 얻을 수 있다.

최고를 향한 특별한 맛, 스페셜티

사람들이 집에서 원두커피를 음미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핸드드립이다. 핸드드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드리퍼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드리퍼는 구멍이 큰 것과 작은 것, 구멍이 하나인 것과 세 개인 것,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과 세라믹으로 만든 것에 따라 천차만별 다양한 맛을 낸다. 구멍이 크거나 여러 개



인 드리퍼는 물을 빨리 배출해 품종에 따라 시큼한 산미와 과일향을 느끼게 해준다. 반대로 구멍이 작은 드리퍼는 그만큼 물을 오래 머금고 있어 묵직한 바디감을 구현한다.

오늘 수업은 원두 등급이 뛰어난 스페셜티(Specialty)로 진행하기로 했다. 멀리 강원도에서 바리스타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달려온 노유찬 연구원은 칼리타 드리퍼와 상큼한 과일향의 아바야 게이사로 핸드드립을 선택했다.

“품종 선택은 좋했지만, 추출이 서툰 것 같아 아쉬움이 들어요. 초보라서 맛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알고 마실 때와 모르고 마실 때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커피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수업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아 즐거웠어요.” 원두 가루 위로 뜨거운 물을 붓는 노유찬 연구원의 표정이 꽤나 진지하다. “오늘 배운 라떼를 더 많이 연습해 미래 여자친구를 위해 멋진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에게 커피가 좋은 결실을 얻는 행운의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핸드드립을 할 때는 원두가루를 드리퍼에 넣기

전 뜨거운 물로 종이필터를 적셔주는 것이 좋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필터와 접촉해 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예열해주면 원두 고유의 풍미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커피에 들어 있는 커피기름과 거품, 크레마 등 원두 특유의 카페스톨은 심근경색 등 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병의 예방을 위해 종이필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



렇게 깨알 같은 커피 지식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정용환 관리원이 큰 구멍이 하나 나있는 하리보 드리퍼로 케냐AA를 추출한다.

“신맛이 강한 케냐AA는 하리보와 궁합이 잘 맞



“대사에 열정적인 정용환 관리원에게 90점의 후한 점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증 동료들을 위해 진한 에스프레소 부탁드립니다. 정용환 파이팅!”



재무실

는 것 같아요. 물이 빨리 내려오면서 알맞게 증화된 듯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오늘 수업에 참여하면서 바리스타가 아냐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색다른 경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려요.”

시원한 아이스라떼로 미션 성공!

바리스타 수업을 마친 사우들에게 중요한 미션이 하나 남아있다.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본원

으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는 것 1층 카페에 도착한 정용환 관리원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이것저것을 점검해가며 숙련된 바리스타가 된 듯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윽고 동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주문이 쇄도하더니 급기야 종업원의 작은(?) 도움으로 무사히 서빙을 마친다.

유현진 사무원은 동료들의 주문을 침착하게 소화해낸다. 하지만 아이스라떼 주문이 들어오자 조금은 당황한 듯 종업원에게 SOS를 요청한다. 이유인즉, 뜨거운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를 얹는 라떼와 달리 아이스라떼는 얼음이 든 우유 안에 에스프레소를 섞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현장에서 터득하며 초보 바리스타들의 미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오늘 하루 이들이 나눈 것은 단순한 커피 한잔이 아닌 동료들을 향한 신뢰와 우정이었다. 그렇게 한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의 길목에서 에스프레소 향기와 함께 진한 동료애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



“하루를 배운 것치고 맛이 정말 부드럽고 프레시합니다. 1일 바리스타로서 정말 최고예요. ‘A+’가 아깝지 않습니다.”



품질경영운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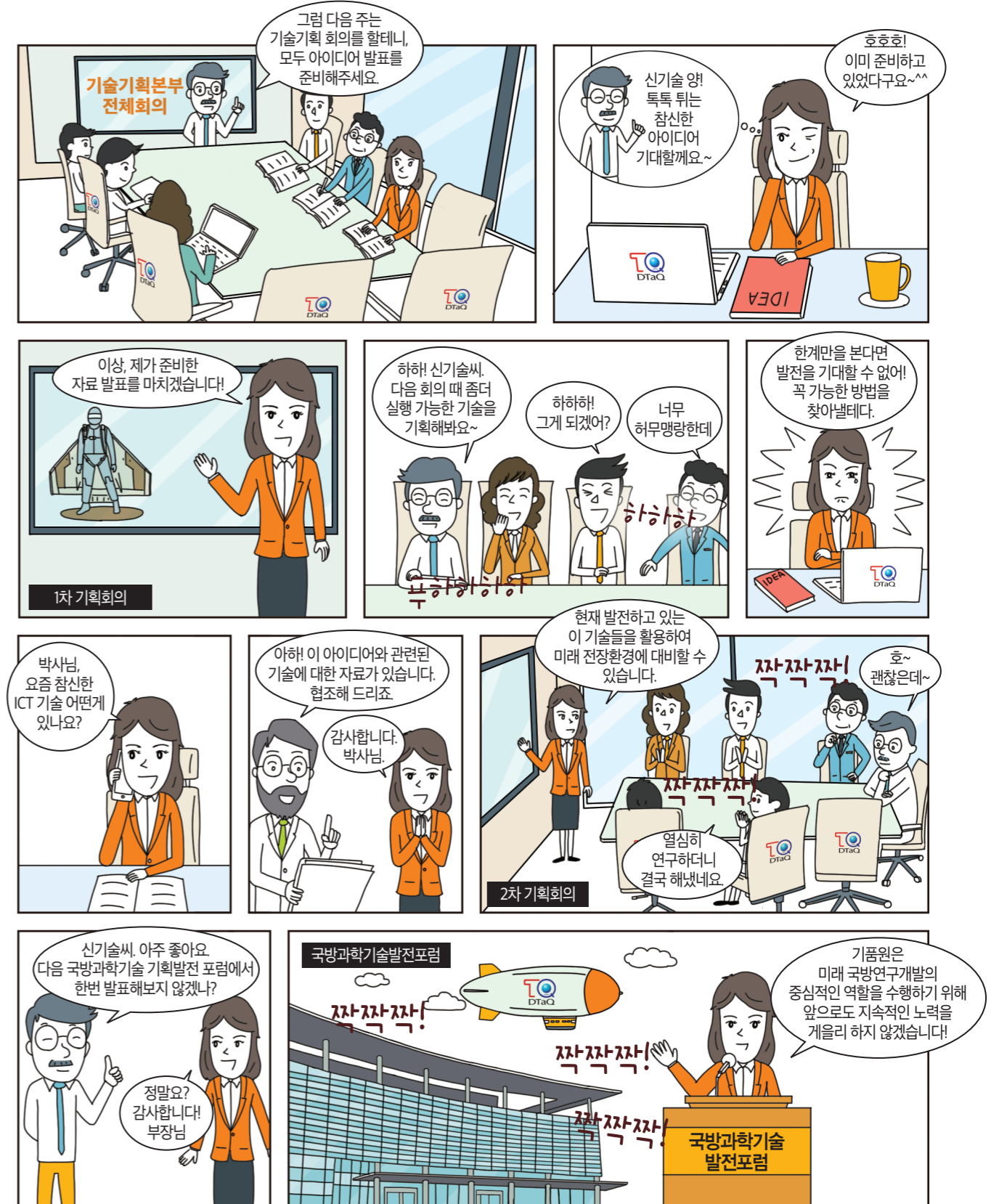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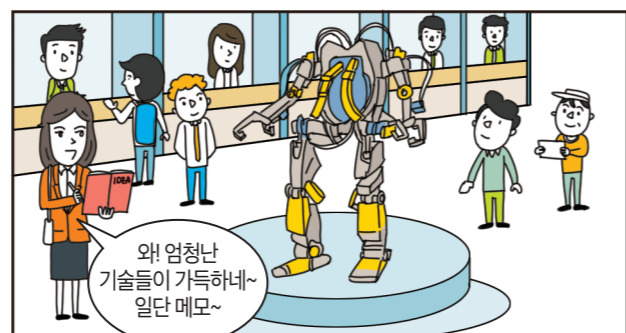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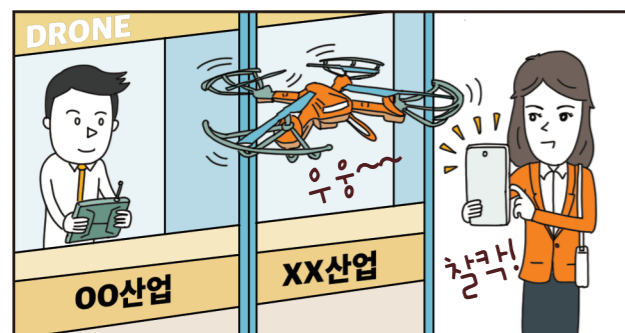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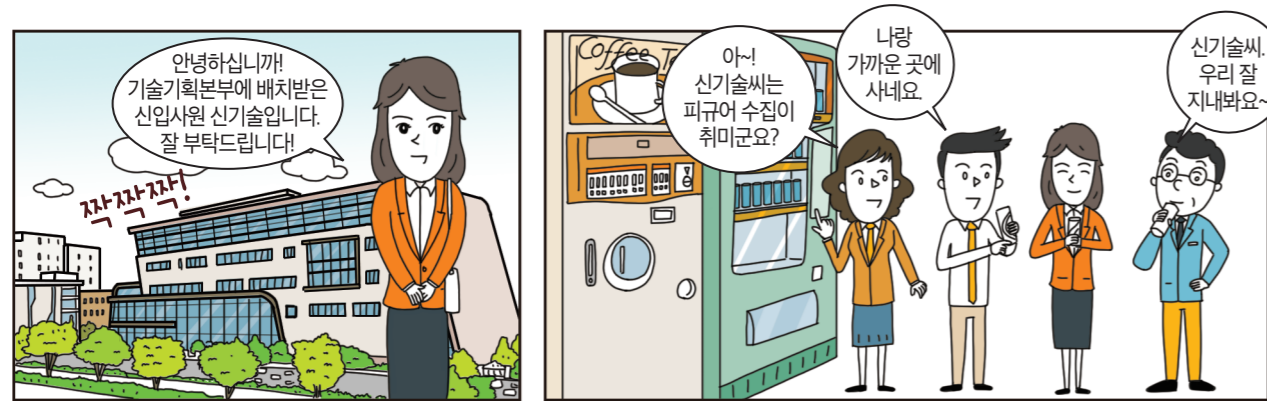
신입생활백서

- 위풍당당 기술기획 도전기

나는 젊었을 때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10번씩 시도했다.

- 조지 버나드 쇼



- To be continued -

행복 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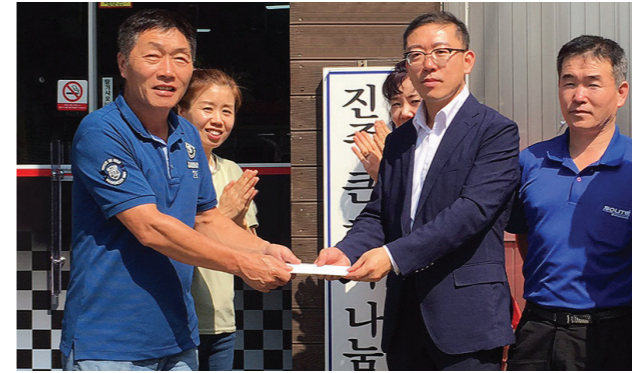


30년 장기 근속 직원 23명에 포상

9월 6일 진주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30년 장기 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이한곤 원장은 30년 근속 대상자 23명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올해 30년 장기근속 직원

박차환(감사실), 최석구(계획예산실), 한춘복(총무실), 이달천(국방인중실), 권경용(SW/IT융합실), 한명희(기술조사팀), 노희명(기술조사팀), 조기홍(기술기획팀), 강우준(분석평가부), 최형묵(기술평가팀), 김대현(절충교역팀), 석광호(기술정보팀), 최성균(품질경영운영실), 강형봉(품질경영운영실), 김우식(전력지원체계2팀), 나상연(전력지원체계3팀), 차성희(대구센터), 김용환(유도전자3팀), 채종묵(유도전자3팀), 권준식(기동화력기술팀), 김경로(기동화력1팀), 김성광(기동화력2팀), 김용화(사격시험팀).



추석맞이 사랑나눔행사 진행...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

기품원이 추석을 맞아 사랑나눔행사를 진행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기품원은 9월 12일 전 직원이 십시일반 마음을 담은 성금 1,700여만 원을 지역복지단체와 인근 군부대 장병, 독립유공자 후손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기품원은 개원 초부터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사랑나눔행사를 진행해왔으며, 2014년 5월 진주로 이전한 후에는 지역복지단체후원 및 지역환경미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늘사랑 병영캠프 참가자'에 교육 지원

기품원이 8월 9일 진주 공군교육사에서 열린 '하늘사랑 병영캠프' 참가 학생들에게 쉽고 재밌는 교육을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이날 기품원 사천센터는 '항공기에 대한 이해와 기초지식 습득'을 주제로 이론교육을 진행했다.

총무공의 후예들, 기품원 방문

총무공의 후예들이 기품원을 방문했다. 9월 6일 통영 총무고등학교 학생 46명이 기품원을 찾아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이론 교육과 모형 비행기(T-50) 조립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5월에는 진주 가좌초등학교 학생들이 기품원을 견학한 바 있다.



기품원,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기품원 감사실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8월 29일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반부패 문화확산을 위해 진주 본원에서 'DTaQ 청렴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업무 수행을 위한 '2016년도 청렴 실천 결의문' 선서가 진행됐으며, 이어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이상필 교수가 '조선의 선비정신과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렴 특강을 펼쳤다. 한편, 감사실은 7월 25일 2016년 전반기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자) 포상도 실시했다. 최우수상은 변지은 연구원(전력지원체계3팀), 우수상은 남윤욱 연구원(기동화력1팀)과 신상식 연구원(합정1팀), 우수부서로는 부산센터가 선정됐다.

일상 나누기



'국방기술기획 발전세미나' 성료

기품원은 7월 19일 공군회관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등 국방기술기획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기술기획 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기획본부 신설 10주년을 맞아 국방기술기획 분야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현곤 원장은 "국방기술기획 전문가들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우리 국방기술기획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품원은 미래 국방연구개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6년 개발단계 품질관리 프로세스 발전 세미나' 개최

기품원은 8월 17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등 연구개발 및 품질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개발단계 품질관리 프로세스 발전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 획득과 운영을 위해 개발단계에서의 선제적 품질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마련됐다.

미국 주재원 업무 발족식

기품원은 7월 13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한국대사관에서 주재원 업무 소개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에는 이현곤 원장과 장지형 주재원을 비롯해 DCMA 관계자와 국방부 및 각 군 무관, 방위사업청 주미국제계약지원단, 국방과학연구소 주재원, KOTRA 무역관장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해군 1함대 방문

기품원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3기가 7월 20일 국방부와 방사청, 해군본부 관계자 등과 함께 강원도 동해에 위치한 해군 1함대를 방문했다. 15명의 모니터링단원은 실제 해군에서 운용 중인 함정에 탑승하여 군 급식을 체험하고, 취사장과 부식창고 등을 점검했으며, 함장과의 대화를 통해 장병관리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모니터링단은 어머니의 눈으로 군 급식의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현 정부의 국민 참여를 높인 정부 3.0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K21 보병전투장갑차 3차 양산 완료

K21 보병전투장갑차 3차 양산이 성황리에 완료됐다. 기품원과 한화디펜스는 7월 15일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21 보병전투장갑차 3차 양산 완료 행사'를 진행했다.

여유로운 시선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이 도시 곳곳을 누빉니다. 가로수에서 만난 붉은 나뭇잎 하나에 마음은 설레기만 합니다. 좁은 테이블 위 작은 화분 하나를 올려놓고, 셔츠 위에 조금은 화려한 외투도 걸쳐 봅니다. 가을을 즐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비록 고난과 걱정과 시대를 살았지만, 그림을 통해 사랑과 행복을 환상적인 색채로 표현해 낸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 그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여유로운 시선까지 훑힐 수 있습니다.

도시 위에서
(Over the Town)
1914~1918년
캔버스에 유채
139 x 197cm

러시아 국립 트레티아코프 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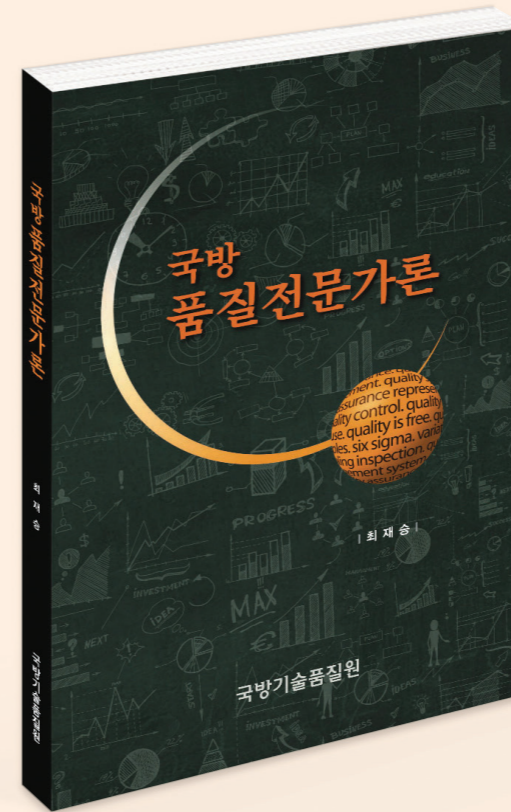


“예술에도, 삶에도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색깔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사랑의 색이다.”

‘색채의 미술사’로 널리 이름을 알린 마르크 샤갈은 20세기 화가들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향수와 동경, 꿈과 그리움, 사랑과 낭만, 환희와 슬픔이 특유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색채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술에도, 삶에도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색깔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사랑의 색이다”라는 철학으로 영원한 사랑을 작품으로 표현해 내고자 했습니다. <도시 위에서>는 바로 작품 속 영감의 인물이 되는 아내 벨라 로젠펠트가 처음으로 등장한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초록과 푸른색 옷이 희색 건물들 위로 희망을 꿈꾸게 하고, 그 아래로는 사갈의 고향마을인 비테프스크의 정경이 정겹게 펼쳐져 있습니다. 울타리 옆에서 엉덩이를 드러내고 일을 보는 남자는 삶에 대한 사갈의 여유로운 시선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결코 평탄치 않은 삶이었는데도 말이지요. 우리는 종종 삶에서 여유를 찾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을이 지나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음에도 계절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여유란 누리고자 하는 자에게만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 바쁜 일상일지라도 삶의 여유를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서 보낸 시간, 그 땀의 복기 국방품질의 본질을 꿰뚫다!

품질 인문학에 관한 이야기. 실패로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역발상적 접근으로 품질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찾고자 한다.



품질 명제화

- 하나, [바사화 문제를 모른다는 것, 그것이 문제다.]
- 둘, [신기전] 품질은 무결점을 지향해야 한다.
- 셋, [복학의] 좋은 시스템이 좋은 품질을 만든다.
- 넷, [타이타닉]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 다섯, [에르메시] 좋은 품질은 더 큰 이익을 남긴다.
- 여섯, [나로호] 품질에는 excuse가 없다.
- 일곱, [Made in France] 조직문화가 바뀌면 품질이 바뀐다.
- 여덟, [일본도] 기본을 지키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
- 아홉, [스파르타의 방패] 고객만족의 시작점은 책임감이다.

“국방품질전문가의 무한한 힘과 열정은 군수품 품질을 향해 힘껏 움직여야 한다.
지금도 군수품 생산현장에서 완벽한 품질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저자 최재승 기품원 책임연구원 | 분야 전투기, 헬기, 무인기, 장갑차, 소대 및 특수공정 분야 품질보증 | 근무 기품원 품질경영본부장 역임, 미해군항공연구소 시스템엔지니어(1984년 입사)
교육 미국 정부품질보증원 과정, 항공기 감항인증 FAA자격인증,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 저서 국방품질전문가론(2016년), 原則에 強하라(2015년) 공저 군수품 품질관리 虛와 實 (2012년), 국방품질보증 방법론(2011년), 국방품질경영 총론(2010년)